

■ 특특뉴스

5만원권 화폐발행잔액 비중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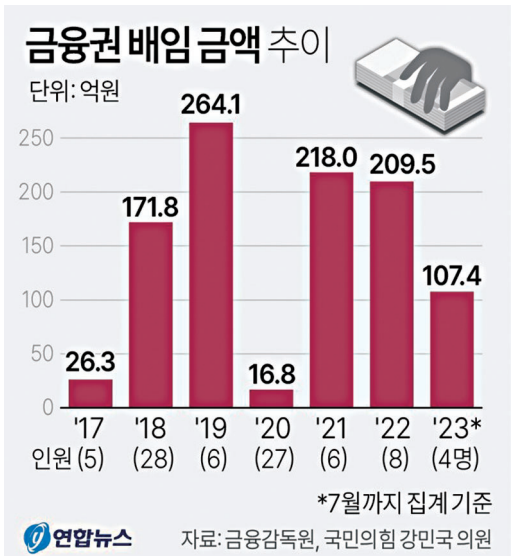
축의금과 조의금, 명절 용돈 등은 물론 일상 생활의 지급결제 등에서 사실상 5만원권이 대 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만원권 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졌고, 5,000원권과 1,000원권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체 화 폐발행잔액 176조8,000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지폐는 155조7,000억원이었다. 화폐발행잔액 중 88.1%가 5만원권인 셈이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 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뜻한다. 5만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이다. 1만원권 비중 은 쪼그라들었다. 지난 8월 기준 1만원권 지폐 발행잔액은 15조6,000억원, 전체 화폐발행잔 액 중 비중은 8.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그래픽 경제



금융권 배임, 7년간 1,014억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 운데 배임액도 지난 7년간 1,000억원대에 달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 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 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연휴 전날 발급 ‘숙박 쿠폰’ 있으나마나

정부, 내수 활성화와 30만장 발급

사용기한 짧고 이미 객실 매진

체감 미미...바가지요금 단속을

정부가 올해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숙박비 쿠폰 지급 계획을 내놓았지 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업주들이 이미 숙박비를 과도하게 올린데다 연휴기간 예약도 이미 끝난 상태에서 연휴 직전 발급하는 쿠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 기 때문이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 일부터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를 열고 숙박쿠폰 30만장을 발급 한다.

쿠폰은 5만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3만원 할인이 가능

하다.

당초 여객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 으나,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기 배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6일 황금연휴기간 국내 여행을 독려해 내수 진작 효과를 얻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많은 소비자가 실제로 쿠폰을 사용하 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먼저 쿠폰은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부터 배포 돼 내달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인기숙소 나 가성비·합리적인 가격의 숙소는 이미 이때 까지 예약이 가득 찬 시점이다. 이날 배포되는 쿠폰을 사용해 숙소를 예약하기는 사실상 ‘하 늘의 별따기’인 셈이다.

혹시 남은 숙소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 기간동안 원래 숙박비에서 2배 이상 올린 가격 을 책정해 판매중이어서 3만원 할인받겠다고 고가의 숙박비를 들이며 여행을 하기도 쉽지 않 은 상황이다.

실제 이날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예



약현황을 보면 바닷가를 낀 지역 인기 호텔과 펜션은 숙박쿠폰이 배포되기 전인데도 이미 90% 이상 예약이 찼다.

이용요금 또한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된 상태 였는데, 그 중 바닷가 지역으로 인기있는 여수

의 A숙소는 평일 6만원인 방값을 연휴기간 25 만9,000원까지 4배 이상 올렸다.

또한 주말보다도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어 내달 주말(14일) 기준 60만원인 풀빌라 가격이 100만원까지도 올라 있었다. 유명 호텔과 모텔 도 기본 2배 이상은 올린 상태였다.

이같은 바가지 요금과 촉박한 숙박쿠폰 날짜 배정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 모씨(28)는 “숙박 쿠폰이 들어오 면 바로 사용하려고 숙소를 알아보는 순간 여행 을 포기해야하나 고민됐다”면서 “괜찮은 펜션 은 예약이 가득 찼고 남은 숙소마저도 가격이 심하게 올랐다. 쿠폰 가격 만큼이거나 그 이상 오르는 등 할인을 받아도 결국 차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3만원 할인쿠폰이 소비 욕구를 자극할 수 있 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내수 진작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선 예약이 가득 차는건 막지 못하더라 도 너무 높은 요금 인상은 억제시킬 대책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승현 기자

광주은행, 해외 자회사 JBSV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베트남 증권시장 본격 진출

“현지화 성공 종합증권사 될 것”

광주은행이 베트남 증권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광주은행은 첫번째 해외 자회사이자 베트남 하노이에 거점을 둔 증권사인 ‘JB Securities Vietnam(이하JBSV)’이 온라인 증권거래 서 비스 ‘FINAVI(금융 내비게이터)’를 지난 22 일 공식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FINAVI’는 광주은행의 빠르고 안정화된 IT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디 자인과 차별화된 기능을 가미해 주식거래 입문 자부터 전문가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 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JBSV 관계자는 “FINAVI 출범과 함께 다양 한 이벤트를 통해 본격적인 증권거래 서비스를

개시해 현지화에 성공한 종합증권사로 더욱 탄 탄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사업영역 다각화의 일환으 로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쏟아왔으며, 지난 2020년 4월 베트남 소재 증권사인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시큐리티(MSGS)’를 인수해 ‘JBSV’로 사명을 변경하고 광주은행 최초 해 외 자회사인 JBSV를 출범시켰다.

이후, JBSV는 베트남 현지기업의 회사채 발 행주관 등 투자금융 현지화 사업을 기반으로 인 수 이듬해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대고객 온라인 증권거래 중개와 마진론 서비스까지 사업영역 을 확대하며 종합증권사로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 의 안정화된 IT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B Securities Vietnam이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FINAVI(금융 내비게이터)’를 최근 공식 출 범했다. /광주은행 제공

골드클래스(주)

“회사 보유분 특별분양”

상무역 골드클래스

富럽다! **상무역 골드클래스 PREMIUM POINT**

상무역 더블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려라!

01

계약금 5% 전세대 대형평형 최상층 (다락)

02

발코니 확장 무상 (준공전 계약자 한함)

03

인테리어 풀옵션 무상시공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

04

잔금 일부 유예 2년 무이자 (최상층 제외)

광주광역시 서구 마루동 117

문의 | 062_227_2278